

Summer Music Parade

여름을
즐겁게
활기차게!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오는 8월 9일 개막하는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영화제의 영화와 음악 프로그램을 최초 공개했다. 총 38개국 117편(중·장편 51편, 단편 66편)의 음악영화와 김연우, 혁오, 자이언티, 윤수일을 비롯하여 40여팀의 뮤지션들이 관객들과 만난다.

역대 최다 상영작 총 117편, 개막작 <아메리칸 포크>(감독 데이비드 하인즈) 선정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는 작년 대비 소폭 상승한 총 38개국 117편의 음악영화가 8개 섹션으로 소개된다. 개막작으로는 데이비드 하인즈 감독의 <아메리칸 포크>가 선정됐다. <아메리칸 포크>는 911테러의 충격 속에서 두 주인공이 오래된 포크송에 대한 애정으로 함께 노래 부르며 음악에 담긴 치유의 힘을 다시금 깨닫는 이야기를 담은 '힐링로드무비'이다.

국제경쟁부문인 '세계 음악영화의 흐름' 섹션에서는 중국의 전통 포크 가수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말더듬이의 이야기 <말더듬이 발라드>, 이란의 가수 샤한 나자피의 일대기를 다룬 <신이 잠

들 때>, 이슬람 종교 지도자의 마이클 잭슨에 대한 사랑과 종교 지도자로서의 삶,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마이클 잭슨 따라잡기> 등 총 6편의 경쟁작이 상영된다. 이 중 한 편은 국내의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롯데 어워드를 수상하게 되며 한화 2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폐막작으로 특별 상영된다.

음악을 소재로 한 작품과 극의 전개에 음악이 중요하게 사용된 해외의 극영화를 통해 영화적 재미와 음악적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시네 심포니'에는 프랑스, 브라질 음악가들의 전기를 다룬 3편의 영화를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영화들이 상영된다. 음악을 통해 다양한 삶과 문화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만날 수 있는 '뮤직 인 사이트' 부문에서는 한국의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레너드 스키너드, 이차크 펄만, 므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 마리아 칼라스 등 뛰어난 클래식 연주자들과 알렉상드르 데스플라, 장 클로드 프티, 마크 아이삼 등 영화음악가들의 삶과 예술을 담아낸 다큐멘터리들이 상영된다.

GRAND
그 랜 드 썸 머 클 래 시 크
SUMMER
CLASSICS

2018.8.11 SAT 오후 2시, 7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객원지휘 박태영 | 해설 정경영 | 소프라노 김현희 | 바리톤 김학준 | 오르가니스트 신동일
무용 광주시립발레단 | 연주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

주요프로그램

국립합창단 기획공연
The National Chorus of Korea

2018
한민족
합창축제

지휘 | 윤의중

대한민국에 슬러 퍼질 화합의 멜로디
전 세계 개역동포합창단과 함께 하는 합창축제
광복 73주년, 평화를 염원하는 메시지가 노래로 울려 퍼진다!

전석무료 | 취학이후 이상 관람가

2018년 8월 14일(화) 16:00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2018년 8월 15일(수) 14:00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8년 8월 16일(목) 20:00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국립합창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예매 및 문의 | 국립합창단 02-587-8111 www.nationalchorus.or.kr

www.sdtc.or.kr

가족 중심의 휴양영화제를 지향하는 JIMFF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섹션 ‘페밀리 페스트’ 부문에는 발레리나의 꿈을 이루려는 소녀의 이야기인 <아리아>를 비롯하여 발달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단편 영화들이 상영된다. ‘주제와 변주’ 섹션은 ‘인도 음악영화, 그 천 개의 얼굴’이라는 주제로 카쉬미르 지역의 저항 음악을 다룬 <저항의 발라드>, 힌두스타니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그린 <싯데슈와리>와 흑백 볼리우드 영화 <반값여행>을 통해 독특한 음악을 선보였던 천재 음악가이자 코미디 배우 키쇼르 쿠마르의 연기와 노래를 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 음악영화의 오늘’ 섹션을 통해 국내 장단편 음악영화를 만날 수 있으며 8월 11일과 12일 양일간은 청풍호반무대에서 무성영화 상영과 함께 라이브 연주를 만날 수 있는 ‘시네마 콘서트’가 진행된다. 올해 시네마 콘서트에는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의 거리의 악사 페스티벌에 함께했던 밴드 신나는섬이 버스터 키튼의 영화 <카메라맨>과 찰리 채플린 주연의 단편영화 3편의 상영과 함께 라이브 연주를 선보이고, 올해 제천아시아영화음악상 수상자인 탄둔의 무협영화 3부작의 음악 또한 토너스 트리오의 연주로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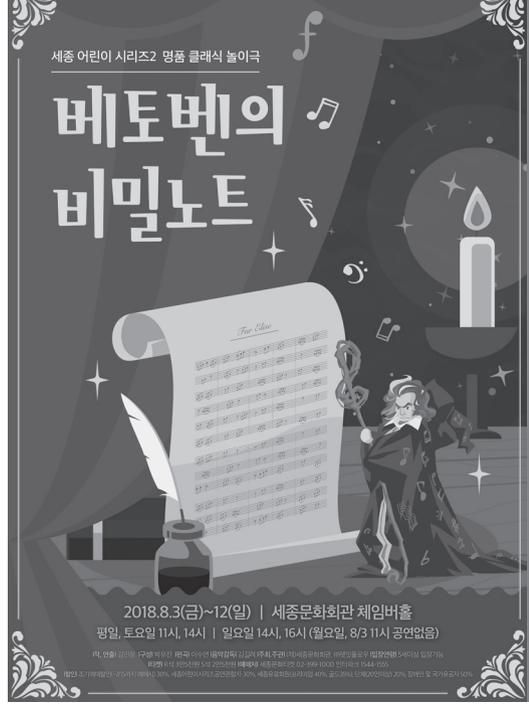
<2018 한민족합창축제>

광복 73주년, 평화를 염원하는 메시지가 노래로 울려 퍼진다!

국립합창단(예술감독 윤의중)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8월 14일(화)부터 8월 16일(목)까지 <2018 한민족합창축제>를 개최한다. 광복 73주년을 기념한 <2018 한민족합창축제>는 세계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한민족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2015년 광복 70주년에 처음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였다. 올해 <2018 한민족합창축제>에는 국립합창단과 재외 한인합창단 5팀과 코리아 콤포케스트라가 함께한다.

8월 14일, 경기도 연천군의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공연을 시작으로 휴전선 너머 북녘에 통일을 염원하는 가슴 벅찬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8월 15일~16일 양일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는 한민족의 민족적 정서와 역사를 담은 창작 작품을 협연하여 통일에 대한 의지를 한 목소리로 노래한다. 이번 한민족합창축제로 인해 국민들이 통일 문제를 자연스럽게 다가가 수 있는 화합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8월 15일에는 광복절을 맞아, 역사상 가장



2018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8/5 오후 5시 **빈 필 & 안드리스 벨스스 콘서트**
말러 교향곡 2번

8/12 오후 2시 **모차르트, 마술피리**

8/19 오후 2시 **슈트라우스, 살로메**

UNITEL KENNEDY-CORNBANK

아픈 상처 중 하나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담은 창작곡을 연주하여, 위안부 문제에 대해 누구나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윤의중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2018 한민족합창축제>는 국립합창단, 코리아콤파오케스트라와 미국 서울대 남가주동문합창단,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인합창단, 중국 북경한인소년소녀합창단 · 중국조선족합일가요합창단, 베트남 하노이한인여성어린이합창단이 출연, 고국을 찾아 통일을 위한 하모니를 선사하며 감동의 무대를 펼친다. <2018 한민족합창축제>는 취학아동 이상 관람가로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02)587-8111.

세종문화회관에서 여름방학 보내기!
-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마련

세종문화회관(사장 직무대행 서정협)은 여름방학 및 휴가시즌을 맞아 학생, 직장인들을 위해 뮤지컬, 클래식, 강의, 체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어린이를 위한 명품 놀이극 <베토벤의 비밀노트>는 “음악의 신”으로 불렸던 천재 작곡가 베토벤의 음악과 함께 어린이들의 감성과 상상력을 한껏 자극하는 명품 클래식 놀이극. 베토벤의 명곡

<엘리제를 위하여>부터 <운명 교향곡>, <환희의 송가> 등 위대한 클래식 음악들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으며, 원곡은 물론, 어린이를 위해 특별히 편곡한 버전을 최고의 클래식 연주자들이 연주할 예정이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어린 관객들과의 소통과 참여가 이어지는 놀이극을 통해 어린이들이 행복한 클래식과의 첫 만남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의 <그랜드 썸머 콘서트>는 여름방학을 맞이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시리즈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클래식 음악에 쉬운 해설과 흥미로운 영상을 더해 그 동안 호평을 받아왔었다. 특별히 올해 <2018 ‘그랜드’ 썸머 클래식>은 11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0년동안 사랑받았던 <썸머클래식> 공연을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를 담아 90여명의 대편성 오케스트라와 성악, 오르간, 발레 갈라 등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찾아온다.
- 서울시합창단의 <신나는 콘서트>는 합창음악회의 틀을 깬 대중을 위한 합창 콘서트로, 합창을 중심으로 클래식, 뮤지컬넘버, 가요 등 장르를 불문하여 들을거리, 볼거리 가득한 공연이다. 올해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하이라이

트 뿐만 아니라,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한국 민요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사한다.

-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의 〈오늘 하루 맑음〉은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청소년을 위한 뮤지컬로, 청소년의 우정과 희망을 이야기 하는 청소년 성장통 뮤지컬이다. 서울시극단장이자 2016년 이해랑 연극상을 수상한바 있는 국내 대표 연출가인 김광보 연출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과 서울시오페라단장을 역임한 이진용 작곡가가 제작진으로 참여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 북서울꿈에숲에서는 여름방학맞이 〈수박프로젝트-IX〉를 통해 원작동화 ‘강아지똥’을 무대로 옮긴 특별한 어린이 연극 움직이는 그림동화 〈강아지똥〉과 귀에 익은 클래식 음악을 해설과 함께 연주하는 클래식 음악회 〈클래식 온 스크린&스쿨〉을 준비하였다. 또한, 돈화문국악당에서는 전통 탈춤의 각양각색의 매력을 조화롭게 어울려 전통이 가진 '있는 그대로의 힘'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획공연 포커스 〈가면희〉를 선보인다.
- 우리나라 동화책 사상 최대의 베스트셀러로 기록되는 그림책,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가장 아름다운 동화, ‘한국의 어린왕자’라는 해외 극찬을 받은 연극 〈강아지똥〉은 세상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가족극이다.
- 지루하고 고루한 음악이라는 인식이 있는 클래식을 보다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클래식 악기시리즈 〈클래식 온 스크린&스쿨〉은 악기가 갖고있는 섬세함과 풍성함, 각 악기의 특유의 음색을 해설과 함께 스크린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연주함으로써 클래식의 재미를 발견할 수 있는 연주회.
- 돈화문국악당 기획공연 포커스 〈가면희〉는 전통 탈춤에 깃든 각양각색의 매력을 조화롭게 선보인다. 한국 전통 탈춤 ‘양주별산대’, ‘봉산탈춤’, ‘강령탈춤’ 등 우리 전통이 갖고있는 ‘있는 그대로의 힘’을 감상할 수 있다.

인상주의 거장 ‘에드가 드가’ 기획 전시 〈드가: 새로운 시각展〉

8월 8일(수)부터 10월 21일(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드가: 새로운 시각〉을 선보인다. 인상주의 마지막 보석이라 일컬어지는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는 무희의 화가로 불리며 발레리나를 중심으로 한 대표작들을 포함해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사진 등 19세기 전반과 20세기 초에 걸쳐 다양하고도 풍부한 작품 세계를 선보인 프랑스 화가이다. 2018년 세종문화회관 개관 40주년을 맞아 준비된 〈드가: 새로운 시각〉전은 2016년 6월 호주 멜버른 빅토리아 국립미술관과 10월 미국 휴스턴 미술관에서 선보이며 총 100만 명의 기록적인 관객을 동원해 세계의 이목을 주목시킨 바 있으며, 이번 전시는 아시아 최초이자 대한민국 최초로 열린다.

풍부한 표현력과 색감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에드가 드가의 예술인생 30년을 담은 〈드가: 새로운 시각〉전은 전 세계 유명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드가의 유명 작품을 한 자리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예매는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성인 1만5천원, 청소년 1만 2천원, 어린이 1만원)

8.8-10.21 세종미술관

